

<http://dx.doi.org/10.20880/kler.2016.51.3.185>

# **한국·중국·미국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 비교 연구 —『연세한국어 6』, 『韓國語 4』, 『Integrated Korean— Advanced Intermediate 1』을 중심으로**

**임칠성**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이 논문은 국어교육학회 제3차 국제학술대회(2016년 6월 22~25일, 체코 카렐대학)에  
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I. 서론
- II. 분석의 기준 설정
- III. 대화문 개관
- IV. 언어기술 영역의 분석
- V. 문화 영역의 분석
- VI. 세 교재의 비교
- VII. 결론

## I. 서론

이 글은 한국과 중국과 미국의 대학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을 교육 목표에 제시된 화법 능력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등급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재료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한국어교육의 고급 목표에서 화법 능력을 추출하여 분석의 기준으로 삼고, 이 기준에 비추어 교재의 대화문들을 각각 분석한 다음, 세 교재를 비교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과 비교를 바탕으로 전체 교재에 대한 비판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한국과 더불어 중국과 미국의 교재를 선택한 것은 이들이 한자문화권과 서양문화권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교재는 다음 세 가지이다.

- 한국: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편(2013), 연세한국어 6,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미국: HO-MIN SOHN & EUN-JOO LEE(2003), *Integrated Korean—Advanced Intermediate 1*, University of Hawai'i Press.
- 중국: 李先汉·金京善·王丹·金正祐(2004), 韩国语 4, 民族出版社.

이 교재들은 해당 국가에서 편찬된 것들로서, 해당 국가의 대학 한국어교육에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교재들이다. 또 주 제작자들이 한국 교포 연구자들이고, 또 제작을 할 때 한국의 연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韩国语의 집필자 네 분 중 한 분은 한국인이고, *Integrated Korean*도 대화 등을 구성할 때 한국의 연구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sup>1</sup>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교재를 제작을 할 때 한국의 등급 목표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들 교재가 각 나라의 교재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sup>2</sup> 다만 각 나라 교재들의 특징을 담고 있는 교재이고,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서로 비교한다는 점에서는 이들이 최선의 교재라고 판단하였다.

해당 교재 시리즈 중에서 대화가 마지막 본문 지문으로 제시된 것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교재들의 체계로 볼 때 분석의 대상이 된 위 교재들은 모두 고급 수준의 교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각 교재에서 대화문이 화제나 대화 참여자에 의해 명확히 구분된 대화 단위를 각 한 단위<sup>3</sup>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한·중·미 모든 교재에는 한 단원마다 두 단위의 대화가 지문으로 제시되어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교재 연구는 매우 활발한 연구 분야이다. 그리고 교재 대화문에 대한 연구도 매우 활발하였다. 교재의 대화문에 대한 연구는 실제성, 문법적 오류, 화용론적 오류, 전형성 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 내용은 이미향(2016)에 잘 정리되어 있다. 선행 연구 중에서 교재의 대화문을 등급별 목표에서

1 중국 교재인 韩国语는 표지에서 저자들을 언급하면서 ‘金正祐(韩国)’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미국 교재인 *Integrated Korean*는 서문에서 고려대와 서울대 연구진들(Haejin Koh, Korea University; Yong-Yae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Heisoong Yang, Ewha Womans University; Seok-Hoon You, Korea University)의 감수를 받았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2 이 교재들이 각 나라 교재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교재들을 ‘연세, *Integrated Korean*, 韩国语’라고 칭한다.

3 한 단위란 대화의 시작과 끝이 형식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단위를 의미한다. 연세는 ‘대화’라는 표현 아래 한 과에 두 단위의 대화가 따로 실려 있고, 韩国语는 ‘課文’이라는 표현 아래 (1)과 (2)라는 두 단위의 대화가 연속으로 실려 있다. *Integrated Korean*은 ‘대화 1, 대화 2’이라는 표현 아래 두 단위의 대화가 연속으로 실려 있다.

제시하는 화법 능력에 비추어 분석한 연구나 여러 나라의 교재문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지 못하였다. 이미향(2016)은 대화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이 글은 한국, 중국, 미국의 교재를 분석하여 비교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되는 교재 한 종들만 선택하였다. 비록 해당 교재들이 해당 국가 교재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들이 해당 국가의 교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이 글의 한계이다.

## II. 분석의 기준 설정

교재는 학습자들이 교육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재료이다. 따라서 고급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고급 교육 목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각 교재들은 각 나라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교재 제작을 하였으리라 생각하지만 세 교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세 나라의 교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혹은 영향을 미쳐야 하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분석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두 가지 문서를 살펴보았다. 첫째,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등급별 평가 기준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의 고급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5급과 6급의 기준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이하 ‘표준 모형’)이다. 이 표준 모형은 그 이름에서 보듯이 국제 통용을 위한 것이다. 표준 모형의 목표는 두 번째 문서인 ‘한국어능력시험 등급별 목표’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등급별 목표가 통괄 목표만 제시되고 듣기와 말하기 목표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표준 모형이 등급별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고 살펴보았다.<sup>4</sup>

4 중국과 미국의 교재들은 이 표준 모형이 나오기 전에 제작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교재들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 목표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표준 모형에서는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표준 교육과정을 <표 1>과 같이 ‘주제, 언어기술, 언어지식, 문화’로 구분하였다.

표 1. 표준 교육과정의 영역별 하위 요소(국립국어원, 2010: 139)

등급 기술 영역	영역별 하위 요소	기술방법
주제	화제	세부적 기술
언어기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과제	추상적 기술
언어지식	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세부적 기술
문화	문화지식, 문화실행, 문화관점	추상적 기술

<표 1>에서 고급 단계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에서 갖추어야 할 고급 화법 능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언어기술영역<sup>5</sup>의 말하기, 듣기 하위 요소이다. 주제 영역은 언어기술 영역의 기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주제 영역을 하나의 능력 영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언어지식은 문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 영역과 마찬가지로 따로 하나의 능력 영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 둘째, 문화 영역이다. 표준 모형에서 6급 총괄목표에 ‘성취문화, 제도문화,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국립국어원, 2010: 142)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 말하는 화법 문화는 생활문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 영역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문화 지식, 실행, 관점 등으로 하위 분류되어 있다.

언어기술 영역과 문화 영역이라는 두 가지 영역 설정은 일반적인 화

5 국립국어원(2010)의 “국제 통용 표준 교육모형 개발 연구”에서는 언어 기능 영역에 해당하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언어기술 영역’이라 칭했다. 여기에서 ‘기술’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언어 사용 능력에서 가리키는 능력은 기법(technic)이 아니라 기능(skill)이다. 그런데 ‘기술’이라는 용어가 자칫 기법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어과의 용어 사용 방식에 따라 기술이 아니라 기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법의 성격과도 일치한다. 이창덕 외(2010: 30–43)에서는 화법의 성격을 ‘구두언어성, 상호교섭성, 관계성, 사회문화성’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측면에서 보자면 ‘구두언어성, 상호교섭성’은 언어의 기능적인 사용이 중심이므로 ‘언어기술’의 ‘말하기, 듣기’로 뭉뚱그릴 수 있고, ‘관계성, 사회문화성’은 광범위하게 한국의 화법의 말문화가 중심이므로 ‘말 문화’로 뭉뚱그릴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별 평가 기준에는 말 문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문화를 특별히 하나의 영역으로 따로 설정하는 데에는 한국어 대화에서 말 문화적 소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대화로 소통하는 말 문화에 상응하여야만 한다. 언어 기능이 무엇을 가지고 소통할 것인가 하는 소통 내용의 문제라면 말 문화는 그 무엇으로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 하는 소통 방식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고급 단계의 소통자라면 정중한 식사 자리에서 ‘더 드세요.’라는 권유에 ‘싫어요! 저 배 불러요.’와 같이 무례한 소통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실수는 화법 소통의 실패를 가져오는데 그 이유는 말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이해영, 2016: 121–122). 박인기·박창균(2010)에서는 한국의 다문화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화법 소통의 실패를 잘 정리해 놓고 있다. 전은주(2016)에서도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인터뷰하여 문화적 소통 장애의 사례들을 잘 제시해 주면서 말 문화가 화법 소통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인의 말 문화란 한국인들의 언어 사용 과정에 내재적으로 자동화되어 있어서 외국인들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소통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다(전은주, 2016: 363). 특히 고급 단계의 화법은 언어기술적인 소통을 넘어 언어 문화적인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이 글이 고급 단계의 교재를 분석하여 비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말 문화를 기술 영역과 같이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 기준은 목표가 영역별로 제시되지 않고 포괄적

으로 제시되어 있다. 5급과 6급의 평가 기준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어능력시험의 고급 평가 기준

등급	목표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li><li>‘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li><li>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li></ul>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다.</li><li>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li><li>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li></ul>

표준 모형의 고급에 해당하는 5급과 6급<sup>6</sup>의 말하기 듣기 등급별 목표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표준 모형의 5급과 6급 말하기 듣기 등급별 목표

등급	목표
5급	<p>말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자신의 전문 분야(직업적, 학문적 영역 등)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li><li>전반적인 사회적, 추상적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최소한으로 말할 수 있다.</li></ul>

6 표준 모형에서는 최상위급으로 7급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상위급이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 주제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주제를 유창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6급에 유창성과 전문화를 더한 것으로 읽힌다. 그래서 이 등급은 제외하였다. 7급은 *Integrated Korean*에서 이 글 분석 대상 교재의 위 단계인 advanced level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교재에는 대화문(본문으로서의 대화 지문)이 없다. 韩国语는 최상위급에 해당하는 교재가 없다. 비교를 위해 세 나라의 ‘고급’ 수준에 해당하는 교재만을 선택했다.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전문 분야(직업적, 학문적 영역)의 강연을 대체로 이해할 수 있다.</li> <li>친숙하지 않은 주제(정치, 경제, 환경, 과학기술 등)에 대한 내용을 듣고 대체로 이해할 수 있다.</li> </ul>
6급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반적인 사회적, 추상적 주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li> <li>상황에 따라 한국어 담화구조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li> </ul>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보고, 협상, 영업, 상담 등의 담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li> <li>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발표와 토론, 대담 등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li> </ul>

두 자료를 통해 언어기술 영역의 기준을 <표 4>로 정리했다.

표 4. 언어기술 영역 분석 기준

분석 항목	분석 관점 <sup>7</sup>
① 전문적인 주제	화제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었는가?
② 연구나 업무 수행 대화	토의나 토론 등 연구나 업무 수행에서 사용되는 집단 화법을 담화 유형으로 택하는가?
③ 공식·비공식 맥락	공식적 맥락과 비공식적 맥락을 균형 있게 설정하였는가?
④ 구어적 특성	구어 표현에 대한 교육, 대화 참여자의 수, 대화 교체 <sup>8</sup> 의 빈도, 대화 장면의 제시 등 교재가 구어 특성을 반영할 만한 형식을 갖추었는가?

언어기술 영역과 달리 문화 영역의 기준은 표준 모형이나 한국어 능력시험의 등급 기준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화법 능력

7 '분석 관점'은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기 위해 이 글에서 정리한 것이다.

8 대화 교체란 대화자의 발화가 교체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새로운 대화자를 발화의 가장 앞에 쓰는 것으로 구분된다.

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화 목표로는, 표준 모형의 문화 지식 3급에서 ‘2. 한국인의 가족 관계, 친족 호칭 등을 이해한다.’ 4급에서 ‘비언어 행위(가슴을 치다 등)에 나타난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와 같은 목표가 등장한다. 문화 실행은 4급까지만 목표가 진술되어 있는데 말 문화와 직접 관련되는 목표가 들어 있지 않다. 문화 관점에서는 3급에서 ‘한국인의 행동 양식, 예절에 대해 이해하고 자국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이해한다.’ 4급에서 ‘3. 비언어 행위에 나타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문화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이해한다.’와 같은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목표는 막연하거나 혹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 글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말 문화, 즉 한국어 학습자의 구두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국어 화법의 특성(전은주, 2016: 362)을 포괄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화 영역의 경우에는 표준 모형과 등급 기준이 아니라 우리 화법 소통에서 ‘내재적으로 자동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키는(전은주, 2016: 363) 일반적인 말 문화를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한 기준 연구(임칠성, 2014)를 통해 분석과 비교의 기준을 <표 5>와 같이 설정하였다.<sup>9</sup>

표 5. 문화 영역 분석 기준

분석 항목	분석 관점
① ‘우리’ 중심 소통	‘우리 아내’ 등과 같은 우리 의식이 드러나는 말 문화에 대해 다루는가?
② 상하 관계 중심 소통	사적, 공식적 맥락에서 호칭을 포함하여 웃어른과 대화하는 방식들에 대해 다루는가?

9 임칠성(2014)에서는 이 다섯 가지를 우리 중심 소통 문화와 고백적 소통 문화로 다시 풍뚱그렸다. 이 연구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기존의 우리 말 문화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다룬 문화는 전통적인 화법 문화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정리한 한국 말 문화 항목들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내재적으로 자동화되어 있는’(전은주 2016: 363) 현상들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이 항목들을 이 글의 비교 기준으로 삼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③ 인정 중심 소통	배부르다고 하더라도 ‘더 드세요!’와 부담을 주는 식 사 말 문화, ‘결혼했어요?’ 등 지나치게 느낄 수 있는 개인에 대한 간섭 등에 해당하는 말 문화를 다루는가?
④ 고백락 소통	우회 화법 등 상황에 의해 의미를 파악하는 대화 현상을 다루는가?
⑤ 말을 삼가는 소통	침묵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대화 현상을 다루는가?

그런데 세 교재가 5가지 말 문화에 해당되는 대화를 모두 다루지 않고 있으며 또, 다루는 항목과 방식들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위의 말 문화에 해당될 만한 것만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 III. 대화문 개관

세 교재의 대화문들을 화제, 담화 유형, (공적, 사적) 맥락, 참여자로 개관하면 <표 6>, <표 7>, <표 8>과 같다.

표 6. 연세의 대화문 개관

단원	단원명	화제	담화 유형	맥락	참여자
1과 1	성공적인 삶	반기문 총장 취임 소감	인터뷰	공적	2
1과 2		성공에 대한 의견	인터뷰	공적	2
2과 1	더불어 사는 사회	회장장 건립	공청회	공적	3
2과 2		기업 이익 사회 환원	동료 대화	사적	2
3과 1	남성과 여성	여자의 승진	며느리와 시어머니 대화	사적	2
3과 2		여시원의 휴직	직원과 부장 대화	공적	2
4과 1	비른 선택	대통령 TV 토론	동료 대화	사적	2
4과 2		통일	배심 토의(국장, 의원)	공적	3

5과 1	스포츠	스포츠 과학	친구 대화	사적	2
5과 2		올림픽 개막 행사	친구 대화	사적	2
6과 1	가까워지는 세계	한국의 외국인 인식	친구 대화	사적	2
6과 2		수입 개방	친구 대화(찬반 의견)	사적	2
7과 1	소중한 문화 유산	수원 화성	동료 대화	사적	2
7과 2		양코르와트	친구 대화	사적	2
8과 1	한국인의 생활	한옥 체험	동료 대화	사적	2
8과 2		효도	동료 대화	사적	2
9과 1	미래 사회	수술 로봇	친구 대화	사적	2
9과 2		직장	친구 대화	사적	2
10과 1	진로와 취업	취업	학생과 선생 대화	공적	2
10과 2		지원자의 동기 등	면접관과 지원자 대화	공적	2

연세는 10개 단원을 6-1권에 1과~5과, 6-2권에 6과~10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각 단원마다 ‘01’과 ‘02’로 구분하여 두 단위의 대화문을 제시하고 있다. 한 단원의 두 단위 대화문은 단원명의 주제에는 부합하지만 각각 내용이 다르다. 예를 들어, 1과는 단원명이 ‘성공적인 삶’인데 ‘01. 성공한 인물’, ‘02. 성공에 대한 가치관’이라는 소단원명을 제시하고 있다. ‘01’에서는 성공한 인물로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선정하여 ‘제임스’라는 외국인이 한국어로 사무총장을 인터뷰하는 내용이다. ‘02’도 ‘제임스’라는 외국인이 한국어로 ‘답변자’로 표시되는 한국인을 인터뷰하는 방식인데 그 내용은 인생의 최고 가치인 가족의 행복에 대한 의견을 묻고 답하는 것이다. 각 단원은 대화문 내용의 주제가 단원명으로 제시되어 있고, 대화문은 그 주제에 걸맞은 구체적인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6과와 7과의 주제는 세계 문화(‘양코르와트’)와 한국인의 문화(‘수원 화성, 한옥 체험, 효도’)와 관련된 것들이다.

표 7. 韩国语의 대화문 개관

단원	단원명	화제	담화 유형	맥락	참여자
1과 1	이야기의 세계	방학 중 있었던 일	친구 대화	시적	2
1과 2		옛날이야기	동료 대화	시적	2
2과 1	유민의 한국 여행	한국 여행	친구 대화	시적	2
2과 2		여행	친구 대화	시적	3
3과 1	예절과 체면	공항 이별	친구 대화	시적	3
3과 2		귀국	친구 대화	시적	2
4과 1	결혼 이야기	결혼식	동료 대화	시적	2
4과 2		결혼식	친구 대화	시적	2
5과 1	함께 사는 세상	봉사 활동	친구 대화	시적	2
5과 2		기부	동료 대화	시적	2
6과 1	배움의 길	고전 읽기	동료 대화	시적	2
6과 2		평생 교육	친구 대화	시적	2
7과 1	한국인의 시간	한국인의 급한 성격	동료 대화	시적	2
7과 2		코리안 타임	친구 대화	시적	2
8과 1	나의 집, 우리 집	한국의 집 모습	동료 대화	시적	2
8과 2		한국인의 ‘우리’ 의식	친구 대화	시적	2
9과 1	두레와 품앗이	‘두레’	동료 대화	시적	2
9과 2		‘품앗이’	친구 대화	시적	2
10과 1	똑똑한 휴대전화	휴대전화	동료 대화	시적	2
10과 2		휴대전화 이용	친구 대화	시적	2

韩国语는 총 15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11과부터 15과에는 대화가 지문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각 단원에는 두 단위의 대화문이 '(1), (2)'로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다. (1)과 (2)는 비록 단원명은 같지만 서로 다른 내용들이다. 예를 들어, 1과의 단원명은 '이야기의 세계'인데, '(1) 유민 씨와 최지애 씨는 방학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2) 황동 씨와 김준호 씨는 옛날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에서 보듯이 (1)과 (2)가 연결되지 않는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1)은 방학 중에 도서관에서 한국의 옛날이야기 자료를 모았다는 내용이고 (2)는 한국과 중국의 옛날이야기에 대한 대화이다.

표 8. *Integrated Korean*의 대화문 개관

단원	단원명	화제	담화 유형	맥락	참여자
1과 1	대인관계	첫 대면(학생과 교수)	학생 교수 대화	공적	2
1과 2		소개하기	학생 간 대화	사적	3
2과 1	노래방	노래방 가기로 약속하기	친구 대화	사적	3
2과 2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기	종업원 손님 대화	시적	5
3과 1	한가위	추석 인사 방법	학생 선생 전화	시적	3
3과 2		추석 인사 가는 길	오빠 동생 대화	사적	2
4과		유머 모음(대화 없음)			
5과 1	문화유산	경주 여행	교수 선생 대화	사적	2
5과 2		광화문 역사	학생 질의응답	공적	2
6과 1	플루트 연주자	국악 콘서트	인터뷰	공적	2
6과 2		공연	동료 대화	사적	2
7과 1	철학하는 바보	책 고르기	동료 대화	사적	2
7과 2		책 고르기	동료 대화	사적	2
8과 1	미국인이 본 한국인	문화 충격	수업 발표	공적	2
8과 2		음식 문화	수업 토론 대화	공적	4
9과 1	거북선과 콜라병	거북선 모형	오빠 동생 대화	사적	2
9과 2		발명	오빠 동생 대화	사적	2

*Integrated Korean*의 “*Integrated Korean–Advanced Intermediate 1*”는 ‘1’이라는 표시에서 보듯이 이보다 높은 수준의 교재들이 더 있다. 그렇지만 대화가 지문으로 제시된 책은 이 책이 마지막이다. 이 책은 9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화문이 ‘1, 2’로 구분되어 연속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대화는 다른 교재와 마찬가지로 내용이 서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1과는 단원명이 ‘대인관계’인데 대화 1에는 ‘(1.5 세 교포 사라 정은 3학년 때 한국의 한국대학에 1년간 교환 학생으로

갔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한국대학의 박영규 교수를 만난다.)'와 같은 대화 장면이 대화 앞에 제시되고 학생과 교수의 첫 만남 대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화 2에는 '(맑은 가을날 사라는 캠퍼스 벤치에 앉아서 교환 학생으로 온 마이클 존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라가 잘 아는 영문과 2학년 이소영이 지나간다.)'와 같이 대화 장면을 제시하고 다른 학생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교재의 4과에는 대화가 지문으로 제시되지 않고, 대신 대화체로 된 유머들이 10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8과 1은 '(마이클이 한국어 수업 시간에 문화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다.)'라는 장면 제시에서 보듯이 지문 대부분을 마이클이 한국의 식사 문화에 대해 발표하는 내용으로 채우고 있다.

#### IV. 언어기술 영역의 분석

세 교재를 언어기술 영역에서 하나씩 분석해 보자. 먼저, 연세의 경우이다. 연세는 화제의 면에서 보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그리고 이런 화제들이 ‘수술 로봇, 한국의 외국인 인식’ 등에서 보듯이 일상적인 삶에 대한 화제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주제에 가깝다. 더군다나 대화 내용이 이러한 사태나 현상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해당 화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들의 의견에 관한 것들이다.

담화 유형의 측면에서 보자면 연세 대화는 5개 대화는 대인 화법에 속하는 반면 2개 대화(공청회, 배심 토의)는 집단 화법에 속한다.<sup>10</sup> 이런 구성은 다음에 보게 될 韩国语나 *Integrated Korean*과 특별히 다른 구성이다.

공식적 맥락과 비공식적 맥락의 면에서 보자면 연세는 20개 대화 중

10 대인 화법은 대화, 면접(면담) 등 개인의 문제 혹은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소통하는 데 초점이 놓이는 화법이고, 집단 화법은 토의, 토론 등 집단(회사 등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정한 조직을 갖춘 모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놓이는 화법이고, 대중 화법은 강의, 연설 등 대중을 설득하거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화법을 가리킨다.

7개 대화가 공청회, 배심 토의 등과 같이 공식적 맥락이다. 그래서 공식적 맥락과 비공식적 맥락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어적 특성에서 보자면 연세의 대화 참여자는 공청회와 배심토론 상황인 ‘2과 1’, ‘4과 2’가 3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2명이다. 대화 참여자가 적다. 게다가 대화 교체마저 적다.<sup>11</sup> 이렇게 되면 구어의 역동성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연세 대화문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전문적인 화제, 담화 유형, 맥락 설정 등에서 비교적 비교 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구어적 특성의 면에서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연세가 구어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대화를 대화 능력을 위한 교육의 재료라기보다는 내용 이해를 위한 지문으로 이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담화 유형으로 공청회, 배심 토의와 같은 집단 화법을 포함하였지만 정작 공청회나 배심 토의의 특성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주제의 내용 전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청회나 배심 토의가 무엇이고 그곳에서는 어떤 소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런 현상은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짚어 볼 필요로 느끼게 한다. 연세에서는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대상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읽힌다. 그래서 정작 대화에 대한 교육보다는 내용 이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sup>12</sup>

---

11 발화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의 비교 항목에서 다룬다.

12 한국 교재에 실린 대화문이 내용 이해 중심이라는 것은 교재의 단원 구성 방식이 주제 중심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언어 교재의 구성은 문종 중심, 주제 중심, 목표 중심으로 나뉜다(최미숙 외, 2016: 70–72). 한국 교재의 단원은 ‘제1과\_성공적인 삶’, ‘제2과\_더불어 사는 사회’, ‘제3과\_남성과 여성’, ‘제4과\_바른 선택’, ‘제5과\_스포츠’, ‘제6과\_가까워지는 세계’, ‘제7과\_소중한 문화유산’, ‘제8과\_한국인의 생활’, ‘제9과\_미래 사회’, ‘제10과\_진로와 취업’와 같이 모든 단원이 주제를 제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주제 중심 단원 구성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지향하는 단원 구성이라는 장점을 가져서 해당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언어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가치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그러나 주제 중심 단원은 언어 능력 계발이라는 언어 교과의 고유 특성을 달성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대화문이 대화 자체보다 대화문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sup>13</sup>은 대화에 등장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어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대화 중에는 ‘국제기구의 수장, 지지와 성원, 귀감’ 등 현재 한국의 대학생들조차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임스: 우선 축하드립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셨는데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총장: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한편 어깨가 무척 무겁습니다.

제임스: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신 대표적인 인물로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외교관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1과 1>

내용 이해는 대화 영역에서 다를 것이 아니라 읽기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급 단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전문 분야의 업무 수행에서 중요한 언어 기능이 어려운 어휘의 습득인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교재의 대화 상황은 토론, 배심토의, 공청회 등이지만 정작 토의 토론 등 집단화법의 듣고 말하기 방법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업무 수행을 하려면 높은 수준의 어휘 이해보다

---

13 대화문이 참여자와 무관하게 내용 이해 측면에 맞추어졌다는 점은 외국인이 대화 참여자로 등장하는 ‘6과 1’과 ‘10과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6과 1’은 외국인과 외국인 간의 대화이고 ‘10과 2’는 외국인이 취업 면접에서 피면접자로 등장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화 내용은 한국의 지식인들이 나누는 수준의 대화이다. 그래서 ‘6과 1’이나 ‘10과 2’의 대화자를 외국인에서 한국인으로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친 구: 이봐, 알렉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길래 얼굴이 그 모양이야? 지하철을 거꾸로 타기라도 한 거야?

알렉스: 말도 마세요. 길에서 사람들이 외국사람 처음 본다는 듯이 헐끔거리는데 마치 제가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친 구: 하하하,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아이들이 날 보고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한걸.

알렉스: 그랬군요… 사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매번 불쾌하다는 내색을 하건만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예요.

친 구: 그래, 한국 사람이나 한국 사회가 여러 면에서 좀 배타적인 건 사실이야. 하지만 최근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크게 늘었고 또 제도의 개선이나 외국인과 관련된 법 개정이 꽤 활발한 걸로 알고 있어.<6과 1>

는 한국의 토의 토론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화가 오고가는지에 대해 먼저 익혀야 할 것이다.<sup>14</sup>

대화문을 제시한 다음 대화 내용에 대해 추론적 이해를 묻는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대화가 내용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6과 1’ 대화문 이후에 제시된 질문들이다.

01 ‘알렉스’가 말하는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02 한국 사회에 대한 ‘친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시한 이유는 교재의 대화문이 대화를 가르치기보다 대화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형식은 대화로 제시되지만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에 가까운 발화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대화문이 내용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연세의 대화문은 구어체의 특성과는 달리 정보의 양이 매우 많고, 그 길이도 길다.

둘째, 韩国语에 대한 분석이다. 韩国语는 화제의 면에서 볼 때 ‘코리언타임, 두레, 품앗이’ 등과 같이 화제가 대체로 한국의 전통적인 삶에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이 오래전 내용이어서 현재의 실정과 거리가 멀다.<sup>15</sup>

유민: 한국에서도 대부분 서양식으로 결혼식을 하지?

지애: 응, 신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멋진 양복을 입지. 그렇지 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예전의 전통적인 혼례 방식으로 결혼식을 치르는 사람들도 제법 많아.<4과 2>

담화 유형 측면에서 보자면 韩国语의 대화문은 모두가 대인화법에 속하는 대화 형식이다. 대화 참여자는 해라체로 대화를 주고받는 친구 이거나 해요체를 사용하는 지인이다. 대화 참여자는 유민, 지애, 한얼

14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 영역에서 다룰 것이다.

15 한국의 결혼식에 대한 대화를 요즘 젊은이들이 나눈다면 ‘우리나라에서 전통 혼례를 올릴 수도 있어’가 될 것이다.

세 명으로 대학생 학습자와 유사한 인물들('나'에 해당할 만한)인데 대화문은 이들 두세 명이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이다. 모든 대화는 사적 대화이다. 공식적 맥락과 비공식적 맥락의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의 교재는 모두 비공식적 맥락이다.

구어적 특성 측면에서 보자면 韩国语의 대화문은 구어체를 사용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sup>16</sup> 감탄사 많고, 대화가 짧으며, 정보의 양이 적다. 그리고 연세와 달리 대화마다 대화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김한얼'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를 부르거나, '한얼이 안녕?'과 같은 표현 등에서 보듯이 그 말투가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구어체 말투가 아니라 중년 이상이 사용하는 말투라는 인상을 준다.<sup>17</sup>

(상황: 김한얼 씨가 유민 씨와 최지애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지애: 김한얼, 반가워. 잘 있었지?

한얼: 이야, 반가워. 오랜만이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지?

유민: 한얼이 안녕? 잘 지냈니? 지난 크리스마스에 보내 준 선물과 카드, 고마웠어.

한얼: 하하, 쑥스럽게 ..... 선물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많이 미안했어. 그나저나, 여행 계획은 다 짰어?<2과 2>

韩国语의 대화문이 구어의 특성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기는 하였지만 대화문의 초점이 연세와 같이 내용 이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화 참여자의 측면에서 보면 참여자 간의 관계가 친구 간, 동료 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화의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교재 구성 방식이 '제2과 유민의 한국 여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제 중심이라는 것도 대화문이 내용 이해 중심이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 그렇지만 한국의 교재와 달리 중국의 교재에는 대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은 없다.

16 '맨입으로 될까?, 이거, 둘이서 너무 다정한 거 아냐?'(韩国语 5쪽과 30쪽)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기도 한다.

17 중국 교재의 대화문이 중년 계층의 말투라는 것은 미국 교재의 대화문이 젊은 계층의 말투라는 것과 대비된다.

대화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지 않고 문화와 사회에 집중되어 있다. ‘두레, 품앗이, 코리안 타임’ 등에서 보듯이 주제가 주로 전통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Integrated Korean*에 대한 분석이다. *Integrated Korean*은 화제가 ‘노래방 가기로 약속하기, 책 고르기’ 등과 같이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된 것들이다. 전체적으로 대화 수준이 전문적인 수준이 아니라 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8과 1’이 수업 발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한 학생의 발표 내용과 그에 대한 선생님의 반응으로만 본문이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학생들의 연구나 업무 수행이라기보다는 학생의 일상 수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담화 유형으로 보자면 16개의 대화 중<sup>18</sup> 2개의 대화가 수업 발표와 수업 토론으로 대중 화법이나 집단 화법이고 나머지는 대화, 면담 등 대인 화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맥락의 측면에서 보자면 16개 중 5개가 공적 맥락이고 나머지는 사적 맥락이다.

구어의 특성 측면에서 보자면 *Integrated Korean*는 교재의 대화문에 구어의 특성과 대화의 역동성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Integrated Korean*는 韩国语와 마찬가지로 대화문의 첫 부분에 대화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구어의 특성과 대화의 역동성은 대화문에서 쉽게 확인된다. 예를 들어, ①~⑦은 ‘2과 1’에 반영된 구어의 특성과 대화의 역동성이다.

(현주, 사라, 마이클이 원식이의 생일 파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주: 이번 금요일이 원식이 생일인데 계획 좀 세워 봤니?<sup>①</sup>

사라: 아직 특별한 계획은 못 세웠는데, 그냥 저녁 먹고 같이 노래방이나 가는 게 어때? 원식이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하잖아.

마이클: 노래방 가자고? 노래방 가면 재밌긴 한데, 원식이는 노래 너무 좋아해서 마이크 한번 잡으면 안 놓잖아.

(현주와 사라 웃는다.)<sup>②</sup>

사라: 하긴 그래<sup>③</sup>. 전에도 원식이랑 노래방에 한번 같이 갔는데 혼자 연속 다섯 곡을 부르더라.

마이클: 완전히 원식이 독무대가 되겠군.

18 17개 단위 중 대화가 없이 유며만 제시된 4과는 대화 단위에서 제외하였다.

현주: 야. 그래도 생일인데 봐 주자.  
마이클: 그러지 뭐.  
현주: 그럼 어느 노래방으로 갈까?  
마이클: 나랑 사라는 최신 가요 잘 모르니까 팝송이 좀 많은 데로 가자.  
현주: 그러자. 참, 저녁은 어떻게 할까?  
사라: 그냥 그날 강남역에서 원식이더러 정하라고 하는 게 어떠니?  
현주: 그게 좋겠다. 강남역 근처에 식당도 많고 노래방도 많으니까. 또 이동  
할 필요 없이 거기서 저녁 먹고 노래방에 가면 되겠구나.  
마이클: 그럼 금요일 날 강남역 뉴욕제과 앞 6시 괜찮니?  
현주, 사라④: 응. 괜찮아.  
현주: 원식이한테는 내가 연락할게.<2과 1>

- ① 발화 어미의 측면에서 볼 때, ‘봤니?, 괜찮니?’와 같이 ‘-니’ 구어체의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대화 중간에 ‘(현주와 사라 웃는다)’와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을  
( ) 안에 넣어 제시하고 있다.
- ③ ‘하긴 그래, 생일인데 봐 주자, 그러지 뭐, 야(호칭), 그러자(동의 표  
현), 나랑, 원식이더러, 원식이한테는’ 등과 같이 문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구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sup>19</sup>
- ④ 여러 대화자가 동시에 발화를 하기도 한다.
- ⑤ 대화 참여자의 수가 비교적 많다. 이 대화의 참여자는 4명이다.
- ⑥ 대화 교체가 비교적 많다. 이 대화의 대화 교체의 수는 15회이다.
- ⑦ 대화의 화제와 내용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울린다.<sup>20</sup>

물론 미국 교재도 대화를 제시한 다음 그 대화와 관련하여 ‘listening comprehension’을 하지만 그 질문이 o, x 수준 등으로 단순 회상 정도이다.

19 구어체 표현을 따로 교육하고 있다. “2.6 하기는 그래(요) / This idiomatic expression is a contraction of 그러하기는 그래(요) (lit. ‘as for doing/being so, that is so’) / 원식이는 마이크 한번 잡으면 안 놓잖아. / Won-sik hardly let others use the microphone once be grabs it. / **하긴 그래** That’s very true.” <하략>(39쪽)

20 미국의 교재는 단원명들이 주로 대화 장면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제 중심 교  
재 구성이라고 할 수 없다.

### Listening Comprehension(161쪽)

- (1) 영국이의 취미는 책을 읽는 것이다. (T, F)  
(2) 승희와 영국이는 교보문고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T, F)

## V. 문화 영역의 분석

세 교재를 하나씩 분석해 보자. 첫째, 연세에 대한 문화 영역의 분석이다. 연세의 대화 내용은 전문적이고 풍부하지만 정작 어떻게 대화를 소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적 장치가 미비하다. 연세는 대화 참여자의 관계가 교수와 학생, 시어머니와 며느리, 상하 관계의 지인 등으로 비교적 다양한 편이다. 그렇지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말 문화는 상대높임법 체계 외에 등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과 1’의 대화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대화인데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말 예절은 읽어내기 어렵다. 그래서 호칭을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두 사람으로 대화자를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며느리: 어머니, 오늘 인사이동 발표가 났는데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이번에는 안 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그거 정말 축하할 일이로구나. 우리 때만 해도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분위기였단다. 그런데 요즘은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 부럽구나.

며느리: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취업주부들에게는 가사와 직장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만 해도 아직 어린 아이들을 어머니께 맡긴 채 회사에 나가야 해서 늘 어머니께 죄송스러워요.<3과1>

호칭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세의 대화문에서는 대화 시작에서 처음으로 한 번 ‘정희 씨, ‘어머니, 부장님, 이봐, 민수야,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대화 중에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韩国语에 대한 분석이다. 韩国语에서는 우리 말 문화를 대화에 직접 반영하거나 혹은 화제로 삼아 한국의 말 문화를 교육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3과는 단원명이 ‘예절과 체면’인데 ‘3과 1’에는 이런 말 문화가 대화에 반영되어 있다.

한얼: 그럼, 꼭 다시 갈 거야. 당분간은 너무 바빠서 어렵겠고, 다음 방학 때나 갈 수 있게 될 것 같아.

유민: 언제라도 환영이야. 그러면 지난번에 네가 가 보지 못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 정보를 미리 보내 줄 게.

지애: 이거, 들이서 너무 다정한 거 아냐? 유민이가 한얼이만 특별히 쟁겨주는 것 같은데?

한얼: 야,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을 가지고 뭘 그렇게 과민 반응이야?

유민: 예의상 하는 빈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마음으로 그러는 것도 아니니까 다들 오해하지 마셔.<3과 1>

8과는 단원명이 ‘나의 집, 우리 집’인데 대화문에서 ‘8과 2’에는 ‘우리’ 의식이 대화의 화제로 등장한다.

유민: 지애야, 한국어에서 ‘우리 엄마’라고 하지 않고 ‘내 엄마’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지애: 글쎄,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사람 누구도 ‘우리 엄마’라고 하지 ‘나의 엄마’라고 하지는 않을걸. 무척 어색하게 느껴져.

유민: 왜 그렇게 표현하는 걸까?

지애: 글쎄, 나도 그 이유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하지.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런 표현이 이상해?

유민: 응, 낯설지. 그래서 생각해 본 건데, 한국 사람들은 개인보다는 집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 워낙 가족이나 자기가 속한 집단을 중요하게 여기다보니, ‘나’를 앞으로 내세우기는 조금 민망해서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닐까?<8과 2>

‘8과 1’에서는 헛기침 문화를 화제로 삼기도 한다.

준호: 네, 그렇지요. 서양에서는 문을 똑똑 두드려서 밖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밖에서 ‘에헴, 에헴’하면서 괜히 기침을 했죠. 말은 안 하지만 그러면 방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뜻을 알고

일어나서 밖에 있는 사람을 맞이하는 거죠. <8과 1>

호칭의 측면에서 보자면 ‘김한얼, 이야, 한얼이, 한얼아, 야, 왕동 씨, 준호 씨(3회), 지애야(2회), 여보세요(전화의 경우)’와 같은 호칭이 등장한다.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모두 대화 첫 부분에 나오지만, ‘이야’ 등과 같이 대화 중간에 상대를 부르는 호칭을 제시하기도 한다.

韩国语에서는 참여자의 관계가 동료 간과 친구 간의 두 가지 유형밖에 없다. 친구 대화와 동료 대화를 대화 내용에 따라 구분하기보다 동료 간 대화와 친구 간 대화의 대화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동료 대화는 중년의 대화로 읽히고 친구 대화는 청년의 대화로 읽힌다. 대화 참여자가 상하 관계가 없어서 대화자들이 모두 한 가지 상대높임법만 사용하고 있다.

셋째, *Integrated Korean*에 대한 분석이다. *Integrated Korean*에서는 ‘8과 2’에서 한국의 언어 예절이 화제로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인정 중심 소통이다.

마이클: 나중에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요, 제 친구 어머님께서 저처럼 한 자리에서 갈비를 많이 먹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저를 갈비 대장이라고 부르셨대요.

선생님: 한국에서 식사할 때 더 못 먹겠으면 음식을 약간 남기던지 아니면 더 준다고 할 때 “아니에요”라고 해서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해요.

마이클: 전 어려서부터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고 배워서 음식을 아주 깨끗하게 먹거든요. 그리고 “아니에요”라고 했는데요.

선생님: 한 번만 “아니에요”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데 그냥 예의로 그런 줄 안다구요. 그리고 접시를 하도 깨끗하게 비우니까 마이클 씨 친구 어머님께서는 마이클 씨가 아직도 시장한가 해서 계속 갈비를 주신 거예요. <8과 2>

*Integrated Korean*는 대화 참여자의 관계가 친구 외에도 종업원과 손님, 교수와 학생, 선생과 학생, 오빠와 동생 등과 같이 다양하다.

호칭의 측면에서 보자면 ‘교수님(2회), 소영아(2회), 언니, 사라 씨, 마이클 씨(2회), 야(2회), 선생님, 사라, 선생님, 제임스 오빠, 사라야, 오빠-

(2회), 상원 씨, 영국 씨(2회), 승희 씨(2회), 여러분, 영호 오빠' 등 다양한 호칭이 처음과 대화 중간에 등장한다.

## VI. 세 교재의 비교

### 1. 언어기술 영역

전문적인 주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연세가 가장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연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전문 주제들을 화제로 삼아서 그 화제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대화문이 내용 이해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전문적인 ‘대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韩国语는 주로 전통 문화와 관련된 화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래된 것들이다. *Integrated Korean*는 전문적인 주제보다는 일상적인 생활 화제를 선택하고 있다.

연구나 업무 수행을 위한 담화 유형을 비교해 보면, 연세는 인터뷰, 공청회, 배심토의, 면접 등 다양한 담화 유형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화 유형이 형식적인 제시에 그치고 있어 제시한 담화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는 부족해 보인다. 韩国语는 담화 유형이 모두 대화로만 구성되어 있다. *Integrated Korean*에서는 대화 외에 발표와 토론을 담화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연세와 마찬가지로 담화 유형이 형식적인 제시에 그치고 있다.

공식·비공식적인 맥락은 그 맥락 속에서의 화법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제시되어야 한다. 연세는 공식적인 맥락과 비공식적인 맥락을 균형 있게 제시했지만 공식적인 맥락과 비공식적 맥락의 대화 방식이 비슷해서 균형 있는 제시의 의의를 잃고 있다. 韩国语는 모두 비공식적 맥락만 제시하고 있다. *Integrated Korean*에서도 공식적 맥락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연세와 마찬가지로 이 맥락적 차이가 대화의 차이로 이

어지지 못하고 있다.

구어적 특성에서 보았을 때 연세는 구어적 특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韩国语는 호칭 등에서 구어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반영에 그쳐 그것이 실제 대화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적 장치가 부족하다. 이는 연세와 韩国语가 대화문을 내용 이해를 위한 지문을 위해 제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Integrated Korean*는 실제적인 구어 상황을 장면으로 제시하고, 구어 문법을 교육하는 등 구어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ntegrated Korean*는 대화문의 제시 목적이 내용의 이해보다 역동적인 실제 대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어적 특성의 반영은 교재의 실제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표 9>는 각 교재의 1과에서 3과까지 발화 교체의 수와 단위 대화의 어절 수를 조사한 것이다.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이다.

표 9. 발화 당 어절의 수

교재	단원	1		2		3		계	평균
		1	2	1	2	1	2		
연세	발화	9	8	8	7	8	8	48	8
	어절	164	181	138	154	144	159	940	156.7
韩国语	발화	10	7	5	9	8	7	46	7.67
	어절	113	101	79	100	103	107	603	100.5
<i>Integrated Korean</i>	발화	17	13	15	18	12	16	91	15.2
	어절	122	155	124	81	134	125	741	123.5

발화 교체의 수는 *Integrated Korean*(15.2)이 연세(8), 韩国语(7.67)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Integrated Korean*과 연세가 제시 분량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 차이는 뚜렷하다.<sup>21</sup> 한 발화 당 어절의 수

21 그렇지만 발화 교체의 수가 대화문의 분량, 즉 대화문을 얼마나 많이 제시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화 교체의 빈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韩国语는 연세보다 대화문 제시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대개 2/3 정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비록

를 비교해 보면 각 교재 간에 현저한 차이가 드러난다. 발화 당 어절의 수(어절 수/발화 수)는 연세(19.58)>韩国语(13.10)>*Integrated Korean*(8.14)의 순이다. 발화 당 어절의 수에 있어서 연세가 *Integrated Korean*의 두 배를 넘는다. 발화 당 어절의 수가 많다는 것은 발화자가 한 번에 더 오랜 동안 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거나 근거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거나 혹은 의견을 제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 발화 당 어절의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발화의 인지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것은 구어와 대비되는 문어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따라서 발화 당 어절의 수가 적을수록 구어체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 참여자의 수에서도 세 교재는 차이를 보인다.

표 10. 단위 대화 당 참여자 수

교재	참여자	대화 단위 수	평균
연세	40	16	2.5
韩国语	42	20	2.1
<i>Integrated Korean</i>	42	20	2.1

연세와 韩国语는 두 대화에 4명이 참여하지만 *Integrated Korean*은 두 대화에 5명이 참여한다. 대화 참여자가 많다는 것은 대화가 그만큼 역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화가 설명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 2. 문화 영역

‘우리’ 중심 소통을 반영하고 있는 교재는 韩国语뿐이다. 여기에서는 집단 중심의 언어 예절과 문화를 중심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예절과

---

수치로는 연세가 韩国语보다 발화 교체의 수가 많지만 대화문 분량을 고려해 보면 韩国语가 연세보다 발화 교체가 빈번하다.

체면’이라는 단원을 설정하고 여기에서 체면치레 인사말을 실제 대화를 통해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집단(‘우리’) 중심 언어 예절의 일환이다. 또 ‘나의 집, 우리 집’이라는 단원을 통해서 우리 의식이 드러나는 표현들에 대한 이해를 돋고 있다. 헛기침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우리 의식 소통 문화이다.

상하 관계 중심 소통 문화는 참여자들의 관계를 통해 반영될 수 있다. 상하 관계에 있는 참여자들이 어떤 방식의 소통을 하는가를 제시함으로써 상하 관계 소통 말 문화를 익힐 수 있다는 것이다. 연세에서는 부장과 직원, 시어머니와 며느리, 면접관과 피면접자, 학생과 교수 등 상하 관계에 있는 참여자들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자들이 그러한 상하 관계 속에서 행하는 말 문화를 대화문에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韩国语는 친구와 동료로만 참여자를 한정 시켜 상하 관계 소통 문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Integrated Korean*에서도 주 참여자가 동료와 친구이지만 참여자로서 학생과 교수, 종업원과 손님<sup>22</sup>, 오빠와 동생 등 상하에 해당할 수 있는 관계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화문에서는 상하 관계의 소통 문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sup>23</sup>

인정 중심 소통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교재는 *Integrated Korean*<sup>뿐</sup>이다. 여기에서는 ‘더 드세요!’와 같이 상대에게 권유하는 식사 예절을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

고백락 소통이나 말을 삼가는 소통은 우리 말 문화로서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교재에서도 이런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22 종업원과 손님은 비록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 종업원이 손님의 요구에 따르거나 혹은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참여자의 관계가 친구나 동료와 다르다.

23 교수를 처음 만나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1과 1’)이나 추석 인사를 하는 장면(‘3과 1’) 등에서 이런 소통이 보이기는 하지만 뚜렷하지는 못하다.

## VII. 결론

연세와 韩国语와 *Integrated Korean*의 고급 수준의 교재에 나타난 대화를 언어 기능과 말 문화의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연세의 대화문이나 韩国语는 대화문의 내용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두 교재가 여전히 언어중심주의(박인기, 2010: 143–144)<sup>24</sup>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화문은 대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반면 *Integrated Korean*는 대화 자체의 능력 신장을 위해 대화문을 제시하였지만 그 대화문이 생활 대화문이라는 측면에서 중급 수준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급 수준의 대화에서 필요한 화법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대화문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대화문은 그 수준에 필요한 ‘대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세 교재 모두 한국의 화법 문화에 기반을 하여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대화문을 구성해야 한다.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지금, 고급 단계의 외국인이 한국어 문화 소통에서 필요한 문화적 능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대화문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문화적 소통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된다. 이는 공적인 담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적인 담화에서도 한국의 공적 담화 소통 문화를 교육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한국 나름의 토론 문화가 있다. 웃어른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우회적으로 자기주장을 펼쳐야 한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배워야 할 것은 자신들의 토의 문화와 다른 한국의 토의 문화일 것이다. 대담에서도 말차례 바꾸기, 긍정과 부정 방식 이해하고 표현하기, 발표할 때 사용하는 인사말 이해하고 표현하기 등에서 한국의 소통 방식은 어떠한지를 자국의 소통 방식과 비교하며 배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말 문화 교육 방법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각 나라마다 자기 나름의 담화 유형 운영 방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토

24 ‘언어중심주의’란 학문적 이성주의의 토양에 기반을 한 것으로, 국어교육에서 소통 능력과 언어 능력이 괴리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주요한 원인이다.

의를 할 때 아시아에서는 우회적이며 전체적인 의사소통을 지향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개인적인 사례와 연계하여 주장을 하고, 유럽계 미국인들은 개인적인 사례보다는 객관적이거나 권위에 근거하여 자기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다(Gay, 2010: 114–116).

언어 학습자들은 머릿속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저 주어진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학습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지식과 도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Richard-Amato, 2003: 3) 그래서 표준 모형의 문화 목표대로 ‘한국 문화와 자국 문화를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표준 모형 문화 영역 5급 목표 3번 항목)하도록 해야 하고, 학습자가 자국의 의사소통과 비교하면서 한국의 담화 유형 방식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은 2016.07.27. 투고되었으며, 2016.08.08. 심사가 시작되어 2016.09.05.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박인기(2010), 「국어교육과 매체언어문화」, 『국어교육학연구』 37, 국어교육학회, 143-144.
- 이미향(2016), 「한국어 교재 대화문에서 대화 참여자의 상호작용성 연구」, 『화법연구』 31. 한국화법학회, 213-245.
- 이해영(2016), 「문화 간 의사소통과 한국어 말하기 교육」, 『국어국문학과 문화, 소통』, 제60회 국어국문학회 공동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국어국문학회, 121-122.
- 임칠성(2014), 「화법 문화의 전통 계승을 위한 화법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144, 한국어교육학회, 279-303.
- 전은주(2016), 「한국어 말하기·듣기교육과 국어 화법 문화」, 『화법연구』 30, 한국화법학회, 361-393.
- 최미숙 외 3관(2016), 『국어교육의 이해』, 70-72, 사회평론.
- Gay, G. 2nd(2010).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Teachers College Press. pp. 114-116.
- Richard-Amato, P. A. (2003). *Making It Happen-From Interactive to Participatory Language Teaching*, Longman, p. 3.

### [연구 자료]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편(2013), 『연세한국어 6-1』,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편(2013), 『연세한국어 6-2』,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李先汉·金京善·王丹·金正祐(2004), 『韩国语 4』, 民族出版社.
- HO-MIN SOHN AND EUN-JOO LEE(2003), *Integrated Korean-Advanced Intermediate 1*, University of Hawai'i Press.

## 초록

# 한국·중국·미국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 비교 연구

—『연세한국어 6』, 『韩国语 4』, 『Integrated Korean-Advanced Intermediate 1』을 중심으로

## 임칠성

이 글은 한국과 중국과 미국의 대학에서 사용되는 고급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을 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화법 능력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교재는 “연세한국어 6-1과 6-2; 韩国语 4; Integrated Korean-Advanced Intermediate 1”이다. 말하기 듣기 언어 기능의 숙달과 말 문화의 소통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말하기·듣기 언어 기능의 측면에서 세 교재를 분석하여 비교해 보면, “연세한국어”는 형식의 측면에서 보자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 화제를 선정하여 대화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화, 인터뷰, 공청회 등 전문적인 업무에서 요구되는 담화 유형을 대화문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내용의 측면에서 보자면 대화문을 대화 자체의 능력 신장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대화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시키기 위한 일종의 글로 제시하고 있었다. “韩国语”는 문화적인 화제를 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제의 내용이 시기적으로 오래된 것이어서 현대적인 감각에 맞지 않았다. *Integrated Korean*은 다른 교재와 달리 구어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대화의 실제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구어 문법에 대한 교육, 대화 상황에 대한 역동성 확보, 상대적으로 짧은 발화의 길이 등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화문이 일상 대화에 머물러 있어서 고급 한국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전문 분야의 다양한 화법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다.

문화 영역의 측면에서 세 교재를 분석하여 비교하면, “연세한국어”

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등 상하 관계 중심 소통을 교육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설정하고 있지만 대화문은 정작 그들 사이에 소통되는 말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韩国语”는 체면치레 인사말, 우리 가족과 표현의 사용 등과 같이 우리 중심 소통 문화를 대화문에서 잘 반영하고 있었다. *Integrated Korean*에서는 인정 중심 소통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모든 교재가 한국의 말 문화에서 중요한 요소인 고맥락 소통 문화, 말을 삼가는 문화에 대해서는 거의 반영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핵심어** 고급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 “연세 한국어”, “韓国语”, “Integrated Korean”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Advanced Level of Korean Dialogues in Korean, Chinese, and English Textbooks**

—Centered on 『Yonsei Korean 6』, 『韩国语(Korean) 4』, 『Integrated Korean Advanced-Intermediate 1』

**Im Chilseon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various Korean dialogues of Higher Level of textbooks, which is currently used in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y analyzing the aspects of speech communication abilities for the advanced Korean speaking learners. This research will examine “*Yonsei Korean 6*, 韩国语 4, Integrated Korean-Advanced Intermediate 1”. It analyzed and compared the level of proficiency, which is related to the skill for speaking and listening tasks, and the level of communication, which is close to language culture.

In the aspect of its proficiency level, “*Yonsei Korean*” contains details of the various topics which construct effective face-to-face professional dialogue, interview, and public hearing etc. The most important part here is that the textbook takes full advantage of the conversation and trie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it for learners, not to use the material for improving conversational skills. Meanwhile, “*韩国语 4*” mainly selects cultural issues, which is usually old and out of date. In contrast with other textbooks, we can know “*Integrated Korean*” shows verbal communication traits and provides rather natural dialogues if we examine closely: spoken grammar activities and exercises, the actual conversational situation, and relatively short length of utterance. Despite its merit, the only problem with this book is that the level of conversation is just suitable for beginners.

Next, let's compare them in terms of culture. Although “*Yonsei Korean*” shares a common relationship between the upper and lower classes like mother and daughter in law relationship, it does not represent the actual way of language usage in the cultural context. “*韩国語 4*” reflects Korean culture learning well: the showing of politeness toward others with courtesy and good remarks, family relationships and face. “*Integrated Korean*” introduces the usual humane communication culture. However, all the three of them rarely show high context culture and reserved expressions, which is the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KEYWORDS** Advanced Korean learner, Dialogues in Korean textbook, *Yonsei Korean*, *韩国語*, *Integrated Korean*